"시대의 격랑에 휩쓸렸던 삶, 한 단계 매듭짓는 느낌"

등단 20여년 만에 첫 소설집 '오리발 참전기'낸 전용호 소설가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황석영과 공동 저자
5·18 다룬 작품 4편 등 모두 8편…역사성 등 담아
"5월항쟁 전사(前史) 중심으로 한 장편대하소설 쓰고 싶어"

지난 2017년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개정증보판 출간 후 황석영 작가(오른쪽), 이재의 씨와 포즈를 취한 전용호 작가(왼쪽). 〈전용호 작가 제공〉

순천 출신 전용호 소설가가 첫 소설집을 냈다. 문단에 나온 지 20여 년 만에 펴낸 첫 작품집 '오리발 참전기'(문학들)는 삶의 이력이 고스란히 응축된 결과물이다. 도대체 등단 후 20여 년이 넘는 시간 무슨 일이 있었을까. 작가는 글을 쓰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그가, 이제야 소설집을 발간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동안 이런저런 문학행사에서 얼굴을 봤던 터라 그는 친근한 문인이다. 최소한 서너 권의 창작집을 냈을 거라고 짐작을 하고 있던 차에 이번 첫 작품집 출간은 의외였고 다소 낯설기까지 했다. 온유한 듯 강한 그는 외유내강형의 작가다. 부드러움 이면에 투쟁과 투사의 기질이 드리워져 있어서인지 불의한 시대에 대한 감수성이 민감하다.

전 작가는 5·18과는 떼래야 뗄 수 없는 문인이다. 그는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의 공동저자다. 1985년 황석영 작가, 이재의 씨와 함께 오월항쟁을 알리기 위해 함께 책을 펴낸 주인공이다. 창작집 얘기에 앞서, 기자는 그와 문제작이자 역사적인 저작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의 발간 이야기부터 나누었다.

"1978년 광주에 터를 잡은 황석영 작가는 그해 겨울 YMCA에서 탈춤강습회를 소개하면서 지역문화운동의 씨를 뿌리는데 기여를 했었지요. 이 일을 계기로 황석영 작가와 광주지역 문화활동가들과 인연이 맺어졌습니다. '투사회보' 제작 때문에 구속된 저는, 1981년 감옥에서 출소한 이후 운암동 황석영 작가 집에서 살다시피 했었죠. 그러다가 1982년 4월 '임을 위한 행진곡'이 마지막 삽입곡으로 들어간 노래극 '넋풀이 굿- 빛의 결혼식' 테이프를 제작해 배포했어요."

이후 전 작가는 1985년 황석영 작가, 이재의 씨와 오월항쟁을 알리기 위한 백서 작업을 계획했다. 자료수집, 집필, 재정모금 등의 팀을 짜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초판을 완성한다. 당시 그는 자료수집 등 활동을 맡았다. 이후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는 2017년 개정증보판으로 출간됐다. 그는 "2010년대에 들어서 지만원 씨 등 일베의 5·18항쟁 왜곡이 심해지자 2015년부터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개정증보판을 내기로 하고 이재의 씨와 함께 집필을 했다"며 "2017년 황 작가의 감수를 거쳐 창작과 비평사에서 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1978년 대학에 입학한 후 탈춤반 활동을 하며 현실에 눈을 떴다. 학생운동에 참여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1980년 5월항쟁 당시 들불야학 동료들과 함께 투사회보 제작을 하다 투옥되었죠. 당연히 학교에서도 제적을 당했습니다. 출소 후에는 '광주민중문화연구회', '광주민중문화운동협의회' 등 문화운동에 참여했어요."

그는 중고교시절부터 문학에 대한 꿈을 꿨다. 그러나 5·18 등 시대의 격변기를 겪으면서 문학의 꿈을 펼칠 수 있었다. 그러다 40대인 1998년 지역신문 신춘문예에 등단해 오랫동안 바랐던 소설가라는 '직함'을 쥘 수 있었다.

등단 이후 그는 본격적으로 5·18을 모티브로 당대의 아픔과 모순을 소설로 형상화하고 싶었다. 그러나 전업작가로 산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사회단체 활동가의 박봉으로는" 창작에 전념할 수 없었다. 당연히 소설 쓰기는 틈틈이 진행됐고 긴 시간이 소요됐다.

"창작보다는 스토리텔링 작가로 살아야 했던 시간이었죠. 생계를 위해 원고료가 지급되는 글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대부분 학교, 기업체, 단체 등의 활동이나 역사에 관한 집필 작업이었습니다."

이번 소설집에는 모두 8편이 수록돼 있다. 4편이 5·18과 관련된 작품이고 나머지는 후일담 이야기와 도시 서민과 관련된 소설이다. 시대의 격랑에 휩쓸렸던 삶이 이번 창작집으로 한 단계 매듭지어진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겠다.

표제작인 '오리발 참전기'와 '물안개', '사이렌 소리', '마지막 새벽'에는 전 작가의 인생을 관통하는 역사적 사건인 5월항쟁의 흔적이 짙게 남아 있다. 반면 '어느 오후', '산새도 오리나무', '비빔밥', '밤의 세계'는 일상성의 문제가 밀도 있게 형상화한 작품들이다.

특히 '오리발 참전기'는 군부대 내부에서도 차별을 받았던 보성 출신 화자를 20사단 수색대 장교로 내세웠다. 작가는 10·26 이후 신군부 쿠데타로부터 5·18 당시까지의 경험을 회고하면서 5·18을 일으킨 세력들을 규탄한다.

"고전적인 의미일지 모르지만 소설은 세상의 다양한 인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창이 아닌가 싶습니다. 1980년대라는 격동의 시간을 살다보니 정작 하고 싶은 창작을 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소설에 대한 애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계획을 묻는 말에 그는 "5월항쟁의 전사(前史)를 중심으로 한 장편대하소설을 쓰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전 작가는 광주전남소설가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창작동화 '천 개의 소원'을 펴냈다. 현재 시민인권옴부즈맨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바다 배경…항해사 체험 작품으로 형상화

보성 출신 박응순 소설 '저녁과 아침 사이' 펴내

모든 작가에게는 창작의 시원이라 할 수 있는 특정한 모티브가 있다. 창작은 그 모티브를 변주하고 새롭게 해석하는 과정이다.

보성 출신 작가 박응순에게 시원의 공간은 '바다'다. 박 작가가 이번에 펴낸 창작집 '저녁과 아침 사이'(문학들)는 대부분의 소설이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7편 중 모두 6편의 작품이 바다와 연계돼 있다. 바다가 인근에서 태어나 여수수산대학을 졸업한 삶의 이력과 무관치 않다.

작가는 대학을 졸업 후 항해사로 해외 송출선과 어획물 운반선을 탔으며 지역 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이번 소설집은 항해사 체험을 작품으로 형상화한 보기 드문 해양문학 창작집이라는 점에서 이색적이다.

표제작 '저녁과 아침 사이'는 태어나는 아이를 위해 다시는 남의 것에 손을 대지 않기로 결심한 잠수부 형구의 이야기다. "그 사람들 만나려고 나서는 건 아니지?"라며 병원 침대에 누운 채 말없이 자신을 바라보던 아내의 애잔한 눈빛이 형구를 저녁과 아침 사이의 시간에 갇힌 바다로 이끌었다. 섬과 섬 사이에는 온통 양식장만 있고 감감한 바다만이 존재한다. 주인 몰래 키조개를 쓸어간다는 소문 탓에 쫓겨났던 형구가 다시 바다로 뛰어든 것이다.

'마젤란 해협'은 운하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정해진 해로를 잃어버리고 만년설을 향해 나아가는 배와 선장의 이야기를 그렸다. 대부분의 소설이 리얼리즘 성향을 띠는 것과 달리 이 작품은 일상의 권태를 뿌리치고자 몸부림치는 서사가 녹아 있다.

층층의 바다를 건너 마지막 작품에 도달하면 중편 '쑥대머리가 들린다'가 기다린다. 작가의 정체성과 목소리를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자신의 생명이자 근원이며 문학적 시원이기도 한 바다를 토대로 하고 있지만 고향 땅에 대한 이야기를 옮겨놓은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박 작가는 광주대 문창과에 편입해 공부했으며 광주전남소설가협회장을 역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연우랑 '그대 이름은 마누라' 출연진.

연극으로 힘들었던 한해 마무리 하세요

연우랑 '그대 이름은 마누라'
20~22일 궁동예술극장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가슴 따뜻한 연극으로 마무리 해 보는건 어떨까. 가족과 남편을 위해 모든것을 포기하고 살아온 '아내'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가족과 부부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연극이 열린다.

극단 연우랑이 '그대 이름은 마누라'를 무대에 올린다. 20일 오후 7시30분·21일~22일 오후 5시 예술의 거리 궁동예술극장.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일하다 정년퇴직한 남편 '윤오'는 밖에서는 다정하지만 집에서는 권위적인 남편이다. 어느날 우편물을 확인하던 윤오는 아내 '순정'의 건강검진결과를 보게되고 순정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윤오는 점점 기운을 잃어가는 아내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 줄수 있을까 고민한다.

한숙희 작가 작품으로 극단 대표 이현기씨가 연출을 맡았다. 박규상·양선영씨가 출연한다.

지난 2011년 창단한 연우랑은 2014년 마산국제연극제에 초청됐으며 2015년 러시아 극단 람빠극장과 합동공연을 선보이기도 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크리스마스 선물은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로

피아트로 뮤직 앙상블 콘서트
22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을 만날수 있는 무대가 열린다.

피아트로 뮤직 앙상블이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개최한다. 22일 오후 7시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

올 상반기에 창립된 피아트로 뮤직 앙상블은 4명의 피아니스트들로 이뤄진 앙상블 그룹이다. 피아트로(Piatro)는 피아노의 'Piano'와 숫자 4의 스페인어 'Cuatro'가 결합된 합성어로 네 개의 손, 즉 두명 또는 네명의 피아니스트들이 다양한 곡을 연주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가브리엘 포레의 '돌리 모음곡', 슈베르트의 '네 손을 위한 판타지' 등이 레퍼토리로 펼쳐지며 생상스의 '죽음의 무도'와 브람스의 '자장가',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 등도 관객들과 만난다.

김설아, 김인영, 이민정, 정승훈 등 4명의 피아니스트가 무대에 오른다.

이 씨는 서울대학교, 미국 예일대 박사과정을 졸업했고 러시안 필하노미, 예일 심포니, 마드리 실내악단 등과 협연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이다.

피아트로 뮤직 앙상블의 리더인 정승훈 씨는 건국대학교 음악교육과 수석졸업 및 동대학원을 조기졸업했으며 미국 신시내티 대학교 석사 졸업,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다. 전석 1만원. /전은재 기자 ej6621@

이민정

정승훈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220-0551

나주산약초
나주시 동점문길8 (나주터미널밑)
미세먼지 걱정뚝!!
☎061)333-4514, 010-3620-7268

박당화랑
동구 궁동 51-18번지(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석당화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식당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따뜻한내과·건강검진센터
북구 운암동 남양휴튼2차상가 2층
소화기 내시경 전문의 2인
진료시간 : 평 일 오전 8:30~오후 6시
토요일 오전 8:30~오후 1시
원장 이상선·박민규 ☎062)511-3388

三代(삼대)원조 나주곰탕
무안군 삼향읍 오룡2길 14 (전남도청 옆)
태양집 60년 전통
수육, 수육무침, 육회 포장가능 단체환영
☎061)287-3229, 010-3602-0297

황금세차장(주)
남구 송암로 27번길 23
(송암공단에서 효천1지구방향 진입로옆)
초대형셀프세차, 손세차, 광택, 유리막코팅
대표이사 김용연 ☎062)652-4564

참깨와들깨
나주시 나주로115 (나주신협앞 다리건너 위)
김밥·멸치국수전문점
김밥&멸치육전국수
☎061)332-9992, 010-7103-2556

해동공인중개사부동산컨설팅
나주시 산포면 468-4 (산포면사무소 입구)
토지·임야·주택·아파트·땅
각종부동산 매매 상담
☎ 061-337-8244, 010-3626-9040

초대화랑
동구 궁동54-2번지(예술의 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OK당구장
동구 대인동 220 대인농협옆
(가요무대 지하)
포켓대 당구대설치, 최신시설완비
냉.난방 완비 친절, 신용 본위
☎ 010-8005-0188

완도전복
나주시 나주로 131 (나주신협옆)
산지 직송 도.소매
전국택배가능
☎010-2831-9257

골프가방수선전문점
서구 치평동 세정아울렛정문 동양빌딩앞
명품가방수선, 골프가방수선, 등산화수선 전문점
☎ 010-2087-3592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권리분석
대표 정민각 ☎ 062)263-2223

광주갤러리경매장
동구 대인동 동부소방서후문앞 참좋은빌 1층
수석, 동양화, 서양화, 민속품
매주 토요일 . 일요일 오후2시부터
☎ 010-6778-9330

현대목공예사
북구 신안동 239-2 (전대정문사거리)
목공예, 서각현판, 각종 원목침대, 서예부품
☎062)523-0408, 010-2631-0408

(주)로만손시계 (주)오리엔트시계
동구 호남동 13-3
금. 은. 고급시계 상담대환영!!
광주. 전남 대리점 A/S센타
☎062)232-0038, 010-2290-0038

진주공방
동구 지산동 동구국민체육센터앞
가죽공예 수업 및 주문제작
원데이클래스 학교수업 단체수업
가죽소품만들기
☎ 010-3906-1718

청강창호
북구 청계로 67(용봉동)
현대하이샤시 + 피엔에고샤시
제작설치전문
☎062)528-7711, 010-3612-9794

고전방
동구 궁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기담철학원
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옆
(우산그린공원 옆)
사주(음권·양권)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개인·단체 환영
☎062)432-1324

신신예술의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